

보도시점 : 2024. 8. 22.(목) 15:00 이후(8. 23.(금) 조간) / 배포 : 2024. 8. 22.(목)

통근버스 출퇴근길 안전, 첨단 AI 모니터링 기술로 지킨다.

- AI기술로 버스운전자 위험운전을 예방... 위험운행 시 실시간 위험 경고
- 민간기업과 함께 통근버스에 AI활용 안전운행 시범사업 실시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 권용복)은 안전한 출·퇴근 환경조성을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 통근버스를 대상으로 “AI 활용 안전운행 지원사업”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.
- AI활용 안전운행 지원사업은 차량 전방과 내부에 설치한 AI 영상분석 카메라로 버스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에게 즉시 피드백을 주는 솔루션으로,
 - 버스 운전자가 운전 도중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, 휴대전화 사용, 졸음 운전, 전방주시 태만 등 중대 법규위반 행위를 하면, AI 단말기가 즉시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울린다.
 - 또한, AI 단말기는 과속·급정지·급출발 등 위험운전행동이나 사고영상(돌발긴급상황, 사고영상, 아차사고*)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를 버스 운전자와 운수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운행습관을 갖추도록 돕는다. *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
 - 이 사업은 작년에 2개 시내버스 회사(60대)에 도입되어, 교통사고율 93.5%(0.123→0.008건/대) 감소, 신호 위반 71.4% 감소, 주시태만 33.3% 감소, 안전운전 점수 9.9% 증가 등 큰 안전 개선 효과를 거두었다.
-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사업 효과의 확산을 위해 LG전자, 한국교통안전공단과 “AI활용 안전운행 지원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*”을 체결하고 LG전자 통근버스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.

* (일시/장소) 8.22(목) 15시~ / LG 스마트파크 R&D 센터

(참 석 자)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, TS교통안전본부장, LG전자 H&A 안전환경/지원담당 등 16명

-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첨단안전장치 장착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I를 활용한 통근버스 운전자의 운행관제 및 교육을 담당한다.
 - LG전자는 AI 안전운전 플랫폼을 창원사업장 통근버스 장거리 노선에 설치·운영하여,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직원들의 출·퇴근길 안전을 확보한다.
 - 또한, LG전자는 올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타 노선 등으로 이 사업의 확대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“AI 기술을 활용한 운전자 안전 운전 지원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 및 승객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,
- “정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동훈	(044-201-3230)
		담당자	사무관	안슬아	(044-201-3863)
사업 부서	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	책임자	처 장	전연후	(054-459-7230)
		담당자	차 장	김경만	(054-459-7237)
사업 부서	LG 전자 창원총무팀	책임자	팀 장	김성우	(055-260-3111)
		담당자	책 임	권우현	(055-269-3109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참고

AI기술 활용한 안전운행 지원 사업 개념도

